## ‘이명박 시대’ 지역현안·공약 점검

❼ 무안국제공항

# 환황해권 거점 공항 육성 연계 교통망 확보 등 절실

### 개항 2개월만에 노선 확대 성장세

### 관세자유지역·활주로 증설 등 과제

전남에 있어서 무안국제공항의 의미는 남다르다.

단순히 인적·물적 수송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의 의미를 훌쩍 넘어서 전남의 영역을 환황해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교두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 8일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이용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아직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항 당시 상해 1개 노선에 불과했던 국제선 항공노선이 개항 2개월여 만에 정기 국제선 항공편 3개노선(주11편)으로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도는 대선 운동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측과 한나라당에 무안국제공항이 대 중국 물류·교역 및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황해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해 인천, 김포공항과 더불어 국토의 3각 국제공항체제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전남의 논리는 이명박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집 중 전남 7대 공약 부분에 ‘무안국제공항의 중개물류중심 공항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전남의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집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은 승객 중심의 공항으로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적자를 면할 수 없다”면서 “무안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중개화물전용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2020년 세계 항공화물 시장 규모는 58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1/3 이상이 동북아경제권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황해권 시대에 즈음해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지역을 중개물류창고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외국계 물류 회사 및 첨단제조업체의 물류센터 유치, 특히 세계적 국내기업이 무안국제화물전용공항을 이용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안국제공항의 중요성에 차기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무안공항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주공항이 개항 10년이 되어서야 승객 100만명을 달성한 것에 비춰보면 국제공항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전남의 계획대로 개항 3년 만에 승객 1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태국 등 국제선 노선 추가 및 향후 동아시아 전역, 미주, 유럽 취항 ▲24시간 운용형 공항 육성, 개항공항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에 무안국제공항 경유 반영(노선 10㎞ 연장) ▲무안국제공항~순천 연결도로 개설(86.5㎞) ▲활주로 연장(2천800→3천200m), 활주로 증설 등의 과제가 다음 정부에서 받아들여 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정호영 특검팀 ‘BBK 수사’ 관전 포인트

# ❶ 광운대 동영상 수사하나
# ❷ 李 당선인 소환조사할까
# ❸ 취임전 수사 마무리될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게 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H빌딩의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초단기간 수사에 동행명령제라는 효율적인 ‘수사 수단’이 없어져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떠오르는 권력’인 이 당선인이 직접 수사 대상인데다 수사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과 4월 총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팀 행보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경준씨와 함께 BBK투자자문 등을 통해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서울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이던 2002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부지 일부를 한 부동산 업체에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운 의혹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의혹 사건 등 4가지다.

상당수는 검찰 수사로 일단 걸러졌지만 상암DMC 의혹 등은 사실상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선 직전 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이 당선인의 2000년 10월 광운대 강연에서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 관계도 특검팀이 풀어야할 과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 지분은 김씨 본인의 것이지만 이 후보 맏형인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임이 분명한데 자금관리인 등 핵심 참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누구의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이씨의 도곡동 땅 판매금 중 ㈜다스에 투입된 17억원의 실체, 즉 이씨 것이 아닌 이 돈이 누구의 것이고 어떻게 ㈜다스로 들어갔는지 등도 이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규명해야 한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 정 특검은 수사팀을 4개로 나눠 각 팀별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 특검은 이날 “검찰에서 수사가 이미 돼 있는 사건은 기록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그밖에 수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바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상암DMC 사건 수사를 우선 시작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특검은 또 김경준 씨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특검은 “어떤 방법이든 필요하면 시행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혀 실제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당선인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친인척 및 측근 등 핵심 인사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주요 참고인이 적극 협조하느냐도 수사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30일간 수사한 뒤 일단 이 당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수사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게 된다.

특검 수사 결과는 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2월25일) 이전인 다음달 22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언론동향 파악 죄송”

### 이경숙 인수위장 거듭 사과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5일 문화관광부에서 인수위로 파견됐던 전문위원이 언론사 간부 성향파악을 지시했던 것과 관련, “우리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이 하나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언론사 동향 파악을 모 전문위원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이나 이념, 운용 방식과 달리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문광부에 요청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사나 인수위원들에게 결재를 받은 적도 없고 혼자 일을 만들어 오해를 만들고, 언론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나간 것 같다”면서 “개인의 돌출 행동이지만 인수위 이름으로 나가 신뢰를 먹칠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인사가) 인수위 소속이지만 인수위 전체 기조나 우리가 나가는 방향과는 영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국민에게 잘못 비치면 새 정부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당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한다. 입법화, 정책화되려면 마음이 합해져야 결국 실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공무원 줄일 수밖에”

### 인수위 박형준 간사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의 박형준 의원은 15일 “정부조직은 상당히 슬림화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수요도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위적인 공무원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온 인수위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조직을 통합하면 군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시대에 맞지 않게 남아 있는 기능은 과감히 털어내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 수를 당장 줄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레 짐작으로 공천 걱정”

### 李 당선인-강 대표 회동

### “총선서 과반수 얻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이제 당선자 측근은 없다. 전부 강재섭 대표의 측근들이 됐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가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회동에서 최근 당내 ‘공천갈등’과 관련, 강 대표가 “당선자 측근들도 불필요한 말을 안 하도록 군기를 잡아달라”고 당부하자 농담조로 이같이 말한 뒤 “공천에 대해 모두 말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 대표가 “당 총선기획단을 만들어 오늘 첫 회의를 했다. 열흘간 밀실이 아니라 떳떳하게 여의도연구소 등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공천심사위원회에 넘겨주자고 했다”고 전하자 “때가 어느 때인데 밀실에서 (공천) 하나”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한 ‘밀실공천 의혹’을 반박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너무 지레 짐작으로 (공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적한 뒤 공심위 구성에 대해 “외부인사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서울 통의동 당선자 집무실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만나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전날 이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을 화제로 올리면서 여야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강 대표가 “어제 기자 회견에 대해 국민들이 코드가 잘 맞다고 한다.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 당선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코드에 맞춰야 한다강 대표는 이밖에 “당이 품위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가지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그 첫걸음은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이라며 “200석은 말이 안되고 겸손하게 과반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당초 예정시간을 10분 가량 넘긴 낮 12시 10분께 회동을 마쳤으며 특히 마지막 30여 분은 양측 배석자도 물린 채 독대 시간을 가져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 지 관심이 모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통령 취임행사위 설치

정부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내실있고 품위있게 치르기 위해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7대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을 가동키로 했다.

행자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7대 대통령 취임행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자부는 보고에서 “취임식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홍보의 장으로서 내실있고 품위있게 거행할 것”이라며 “임기개시 상징행사, 취임식, 국립묘지 참배, 경축연회, 외빈초청 만찬 등 세부적인 행사계획은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합격률 전국 1위 = 오전반 야간반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개강 1월 7일
현재상담접수중
■ 현대적 학습시설 ■ 과학적 평가 시스템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236-2467 전남여고 건너편

2009 학년도 공립학교 (유치원 · 초등 · 중등 · 보건)
교사임용시험?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 입니다!
2009학년도 임용시험 3단계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
-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 곽내영교육학 겨울방학 특강은 새로운 전형체제에 맞춘 교직교양 필수강좌이며, 1차 교육학시험은 물론 2차 논술시험을 위한 기초 다지기 '방법론' 강좌 입니다.
※ 곽내영고시학원은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많은 문제를 적중 시켰다'고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오직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설강좌
교육학 곽내영선생 7본이론및 교직교양필수강좌 개강 1월 5일(토)
초등교육 위재권선생 기본 내용정리 강좌 개강 1월 2일(수)
유아교육 임미선선생 7초미지기 강좌 개강 1월 10일(목)
무료공개설명회 매주(화,금)11시, 3시, 7시 http://www.naeyoung.com
처음시작하여 합격까지 전문 상담을 통한 합격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궁금한 부분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최적의 학습 환경 구축 ※개인사물함, 스터디룸, 정독서실, 개인PC룸
인터넷 동영상강의 www.eduview.net 에듀뷰넷
최뿐핵 전공국어 기본이론강좌 개강 1월 7일(월)
강치욱 전공생물 기본이론강좌A 개강 1월 10일(목)
장영민 전공물리 기본이론강좌 개강 1월 8일(화)
곽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062)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